

생태 환경에 대한

각성 촉구 학생 선언

2018년 학생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과학 공동체의 수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환경과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매 10년은 그 전보다, 1850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웠다. 2018년 올해에는 심지어 스칸디나비아의 나라에서 이례적인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미 오늘날 유럽의 생물60%는 존속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류의 삼분의 일은 토지의 사막화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극한 기후 변화의 빈도가 증가하고,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질병이 재 창궐함에 따라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2030년까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2050년까지 인구 2억 5천 명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동해야 할 것이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으므로 간단히 말하겠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구 한계' 9개의 항목 중에 적어도 4개의 항목에서 안전한 수위를 벗어났으며, 그 이상의 환경 파괴는 지구 시스템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인류 활동의 지속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이에 맞서기도 전에 지구 한계가 모두 초과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가? 물론, 2015년 유엔기후변화회의(COP21)에서 195개국은 전문가와 비 정부기구의 지지를 받으며, 어떠한 강제성 없이, 지구의 온도가 통제 불능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2°C 미만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위의 국가들이 약속한 숫자와 필요한 배출 감소량 사이의 간극을 보며 우리는 현재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방법이 불충분한 이유는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국내총생산 수치의 부족함을 실제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그 수치의 증가율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과 사회 위기 문제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자원의 유한성과 환경 파괴 불가역성에 대해 항상 고려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을 때까지 훼손된 환경과 불평등 심화 문제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공공의 이익에서 자주 멀어지는 모순된 이익의 표현에 얽매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사회 부흥을 위해 야심 차게 결정하는 것을 어렵힌다. 그리고 우리의 이념 시스템은 무제한적인 이윤과 소비를 원하는 개인주의적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견디기 어려운 생활 방식을 우리로 하여금 《보통》으로 여기며 행동하도록 조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의 서명자인 우리는 사회의 이 어두운 그림을 숙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놓여 있다.

첫째는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길을 따라 가는 것이며, 소수의 사람들이 해 놓은 약속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직업 생활 속으로 사회와 환경에 대한 열망을 불러들이고 예상하며, 함께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은 아무 것도 바꾸지 않거나 표면적인 변화만을 계속하면 된다는 점에서 그 용이함이 장점이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젊은이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숨가쁘게 돌아가기만 하는 기계를 평생토록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제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우리 여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부유하고 온건한 나라들이 환경 파괴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기까지 어쩌면 아직 유예 기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장 모델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시간에 그 유예 기간을 우리의 무기력을 정당화하는 핑계거리로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보통의 프랑스 사람은 지구상 부자 상위 3%에 들어가며, 그의 생활 방식을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세 개 정도의 지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런 불평등의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이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참여가 선택이라고 할 지라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해 보면, 기상 이변 또는 자원 고갈을 급격화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곧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시스템이 그동안 우리

가 해 온 사유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가며, 우리를 일상의 모순 속에 갇히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확고하지만 혼자 행동할 수 없다. 공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여기는 정치 결정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우리는 위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노동자인 우리는 이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우리의 안락 지대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노동자로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이 선언을 통해 표명한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며,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제 서둘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며, 지구와 다른 민족과 미래 세대에까지 빛을 지는 우리 능력과 맞지 않는 생활 방식을 멈춰야 할 때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소비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친환경적 변화를 우리 사회 프로젝트 한 가운데에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도약해야 한다. 이 같은 규모의 변화 현장에서는 모든 에너지의 통합이 필요하며, 우리는 열정과 신념을 갖고 우리의 힘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주체인 공권력, 기업, 개인과 단체 모두가 이 거대한 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충실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를 주도하기를 희망한다.

이 선언문 작성에는 파리 경영 학교 (École des hautes études commerciales de Paris, 상경계 그랑제콜), 아그로파리테크 (AgroParisTech 생명, 환경 공학계 그랑제콜), 상트랄 수펠레크 (Centrale Supélec, 이공계 그랑제콜), 에콜 폴리테크닉 (École Polytechnique, 공학계 그랑제콜), 파리고 등사범학교 (École normale supérieure d'Ulm, 인문, 자연학계 그랑제콜)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로부터 매우 많은 의견을 받았다. 30,924명의 학생들이 선언문 서명에 동참하였고, 그 중 프랑스 학생은 27,960명이다.

출처 : <https://pour-un-reveil-ecologique.fr>

번역 : 구모덕

